

정치테러 비호하는 내란세력 처벌하라

극우 폭도들에 의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를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극우 폭도들에게 ‘달걀테러’를 당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이재정 의원이 기습 폭행을 당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백혜련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작극 아니면 99% 유도극”, 심지어 “반대 진영 쪽에 왔으면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테러를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까지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폭력과 테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테러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혀 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당 의원과 윤석열 변호인의 입을 통해 정치테러를 비호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듯한 기가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윤석열의 입’으로 내란을 선동해 왔습니다.

내란세력의 선동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하루하루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대형확성기를 차량에 부착한 극우 유투버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여성 혐오 발언을 의원들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를 짓밟고, 그에 대한 단죄가 미뤄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참담한 장면들입니다.

내란세력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도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는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폭력과 테러를 비호하거나 부추기는 세력에 대한 처벌도 단호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처참한 현실의 원인인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과면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